

선수난... 상주는 골키퍼가 없다

K리그 17R '승부조작 부메랑'

승부조작 직격탄 대전·상주·전남
히말이엔 강호들과 나란히 맞붙어
포항·서울·수원 '지면 망신' 긴장

K리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대전 시티즌,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는 직격탄을 맞았다. 검찰의 1,2차 조사에서 대전 9명, 상주 상무 9명, 전남 4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구속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각 구단에 "승부조작 혐의의 기소된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전, 전남, 상주는 선수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3구단은 공교롭게도 이번 주말 열리는 K리그 17라운드에서 강호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다. 9일에 포항과 대전, 서울과 상주가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10일 수원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이대신 잇몸으로 나서는 대전, 상주, 전남
대전은 선수 뿐 아니라 사령탑도 공백 상태다. 왕선재 감독이 경질된 이후 신진원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다. 이번 경기를 감독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상주는 골키퍼가 없다. 골키퍼 2명이 승부조작에 연루됐고, 나머지 1명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서울전에 나설 수 없다. 필드 플레이어들을 골키퍼로 준비시키고 있다. 전남은 해외진출로 지동원(선덜랜드)이 빠졌고, 용병 코니는 경고누적으로 못 나온다. 공격과 수비, 미드필드에 승부조작 연루자가 있다. 대부분이 1군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다. 전남은 U-20 대표팀에 합류했던 이종호, 황도연, 김영욱 등 3명이 주말 경기를 위해 팀에 복귀한 게 위안거리다.

●부담스러운 대결을 앞둔 포항, 서울, 수원
대전, 상주, 전남과 경기를 치르는 포항, 서

원, 수원은 이번 주말 경기를 준비하는데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부조작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는 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거둬도 망신 당하는 셈이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만큼 절실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준비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최용수 감독대행은 "선수들에게 더 공격적인 축구를 주문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플레이를 제대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주 필드플레이어가 골키퍼로 출전하지만 선수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용수 기자 ytyong@donga.com 트위터@ytyong11

"최용수는 7~8점" 데안은 아부를 몰라!

너무 솔직한 평가에 멧쩍은 최대행
풀백 김동우 "난 10점 만점" 외치자
데안 "입심은 9점 주겠다" 좌중 폭소

FC서울 최용수 감독대행은 파스한 형님 리더십의 선두주자다. "수적이 아닌 수평, 인내를 갖고 선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게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항상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최 감독대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말 상주와의 K리그 홈경기를 앞둔 8일 구리 GS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에 참석한 서울 용병 데안(사진)은 벤치의 지도력이 화두에 오르자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난해에 비교할 수는 없다"며 "점수로 환산하면 10점 만점에 7~8점 정도를 주겠다"고 말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을까. 멧쩍은 미소로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던 최 감독대행과 함께 자리했던 토종 수비수 김동우가 정답(?)을 외쳤다. "남치는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다. 난 10점 만점을 드리겠다."

최 감독대행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라는 환경과 토양이 다르다 보니 우리 데안이 이런 게 부족하다"며 크게 웃었다. 정서가 달라 아무(?)를 할 줄 모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데안도 어느덧 K리그 5년차. 어지간히 한국 생활이 익숙해진 터이다. 금세 분위기 파악에 성공한 데안도 여기에 질 수 없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는 최 감독대행의 화려한 입심과 어록에 대해 데안은 "중압감을 받는 어린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부드러운 말로 선수들이 서로 믿음을 갖게끔 한다. 이번에는 9점을 주겠다"고 답해 좌중을 웃겼다.

승부조작 파동으로 어수선한 K리그. 5승 6무5패(승점 21)로 10위를 달리고 있어 반전을 노려야 하는 형편이지만 서울의 분위기만큼은 최고에 달해 있었다.

구리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혈체어 vs 목발" 부산-대구 동병상련

부산 중앙수비 전멸...대구 주전 6명 아웃

"혈체어 탄 사람과 목발 짙은 사람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부산 아이파크 관계자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대구FC와 부산은 9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K리그 17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최근 K리그에 불어 닥친 승부조작 파문으로 두 팀 다 정상전력을 가동하는 게 불가능하다.

부산은 특정 포지션에 큰 구멍이 생긴 반면 대구는 전 포지션에 걸쳐 공백이 생겼다는 게 차이점일 뿐이다.

부산은 중앙 수비 포지션이 전멸됐다. 승부조작으로 기소된 4명의 포지션이 모두 중앙 수비다. 호주 출신의 이안만 외롭게 골문 앞을 지키고 있다.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용병 공격수 2명을 데려와 예정이었던 부산은 부랴부랴 계획을 바꿔 공격수 1명, 중앙 수비수 1명을 영입했다. 그러나 아직 프로축구 연맹에 등록이 안 돼 이번 경기에는 나서지 못한다.



안익수 부산감독 이영진 대구감독

대구나 부산은 컵 대회에서 선전하는 바람에 최근 2주 간 5경기를 치르는 죽음의 레이스를 소화 중이다. 부산 안익수 감독은 "열심히 뛰여주는 선수들에게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대구는 수비수 2명, 미드필더 3명, 공격수 1명이 빠졌다.

가뜩이나 선수 층이 얇은 데 6명이 빠져 대구 이영진 감독이 울상을 짓고 있다. 대다수가 팀의 핵심 전력으로 뛰었던 선수들이라 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들에게는 올 여름의 무더위가 더 더인하게 느껴질 것 같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AS모나코 "박주영 AC밀란과 접촉"

AS모나코가 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박주영(26)이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팀 AC밀란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모나코에 따르면 박주영의 에이전트는 AS 밀란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부회장과 미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주영에 대한 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프랑스 1부리그 릴도 박주영측과 만났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표명했다.

지단, 레알 마드리드 단장 된다

AP. 로이터 등 유력 통신사들은 "프랑스 축구 영웅 지네딘 지단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 단장으로 부임한다"라고 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3차례 뽑힌 지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다.

전임 호르헤 발다노 단장은 호세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로 5월 사퇴했다.

편지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02



여자대표팀 지소연이 8일 파주NFC에서 열린 훈련 도중 슛을 날리고 있다. 지소연을 비롯한 여자대표팀 선수들은 2012년 런던올림픽 예선전을 위해 소집 훈련을 시작했다. 파주 | 연합뉴스

지소연·권은솜...정예멤버 다 모였다

여자대표팀, 올림픽 예선 첫 담금질

여자대표팀이 8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됐다.

여자대표팀은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은 9월 1일부터 중국 지안에서 열리는 데 중국, 일본, 북한, 태국, 호주와 풀리그를 치러 2위 안에 들어야 한다. 이번 소집훈련은 여자대표팀 최인철 감독의 특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마침 WK리그도 다음달 1일까

지 경기가 없다. 일본 고베 아이나에서 뛰는 지소연과 권은솜까지 잠시 귀국해 명실상부 최강 멤버가 다 모였다. 최 감독은 이번이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 여자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독일을 직접 방문해 일본과 북한 등 아시아 팀들의 조별리그 경기를 직접 봤는데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5일 귀국했다. 여자대표팀은 13일까지 훈련한 뒤 소속팀 일정을 위해 해산했다가 8월에 다시 모일 예정이다. 윤택식 기자

K리그 17R 관전포인트

9일(토)

대구 VS 부산	대구는 2003년 이후 부산과 홈경기에서 5승5무로 패한 적이 없어, 그러나 기록은 기록일 뿐, 부산도 최근 4연승으로 가파른 상승세 타고 있어 접전이 예상된다.
광주 VS 강원	올 시즌 원정 10경기에서 2무8패로 한 번도 승리를 챙기지 못한 강원팀이 광주를 상대로 원정 첫 승에 도전. 강원은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서 탈출하는 게 관건.
제주 VS 경남	제주, 최근 4경기 11득점의 빛나는 공격력 과시하고 있는 중. 경남은 최근 원정 4경기 1무3패로 부진한 상황. 가뜩이나 제주 원정 쉽지 않은데 이번에도 경남이 고전할 듯.
포항 VS 대전	두 팀 다 불안한 수비가 아킬레스건. 포항은 경기 초반 선제 실점하는 경기가 많아 고민. 대전도 마찬가지. 최근 3경기 9실점으로 경기 당 3골씩은 내주고 있어. 수비안정이 우선.
서울 VS 상주	용병 vs 토종의 득점포 대결 구도. 득점 선두 상주 김정우(11골)와 바짝 추격 중인 서울 데안(9골)의 맞대결 관심. 최근 4연패 부진에 빠져 있는 상주는 이번 승리가 특히 절실.

10일(일)

성남 VS 인천	경기내용은 좋아지고 있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성남. 다 이긴 경기에서 막판 실점을 허용해 무승부가 많은 인천. 성남이 까탈로스 퇴출시키고 영입한 에벨리오의 데뷔전.
울산 VS 전북	전북, 예닝요와 로브레이크 징계로 한꺼번에 출전하지 못해. 그러나 '타공'(타치고 공격)의 중심 이동국이 있기에 걱정 없다. 이에 맞서는 울산은 고공폭격기 김신욱에 기대 걸어.
전남 VS 수원	수원, 정규리그 3연승 상승세 이어갈 태세. 수원 윤성효 감독은 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최근 영입한 '검증된 용병' 스테보 투입도 고려 중일 정도로 승리에 대한 의지가 커.

지성의 친구들, 지동원과 한술밥

웨스 브라운·존 오셔 전격 선덜랜드행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게 프로 스포츠의 당연한 생리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과 엮이게 되면 기류는 묘하게 흘러간다.

맨유에서 박지성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3명의 선수들이 2011~2012시즌부터는 지동원(선덜랜드)과 함께 할 전망이다. 선덜랜드는 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비수 웨스 브라운과 만능 미드필더 존 오셔의 영입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맨유 유스 출신으로 1군 스쿼드까지 올랐던 브라운과 오셔는 십여 년 동안 많은 영광을 맛봤다. 하지만 짙은 부상과 부진, 포지션 중복 문제로 맨유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대대적인 팀 리빌딩을 선언한 퍼거슨 감독은 아쩔 수 없이 둘을 보내줘야 했다. 그들의 새 행선지 퍼거슨 감독의 옛 제자였던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지휘하는 선덜랜드. 여기에 맨유의 아일랜드 출신 미드필더 대런 김슨도 선덜랜드행이 임박한 상황이다.

선덜랜드가 맨유 출신 3인방의 패키지 영입을 위해 1200만 파운드(약 202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지급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들은 박지성의 동료로서 지동원의 조력자로 변신한다. 새 시즌 EPL을 바라보는 또 다른 묘미다.

남정현 기자

자동차가 찢통? 네비는 폭발 직전? 애먹지 말고

에르고 ERGO

7, 8월에 자동차보험 만기라면 **지금이야 기회!**

이제 변호료 보험료만 알아봐도 **햇빛 가리개를 주니까!**

기간: 2011년 6월 31일까지(매일 신청) 20명/시도(지역 한정)

첨두철미한 전화 번호 **1544-1666** ERGO 에르고다음 다이렉트*